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나님 면전에서 길을 만들라 (시편 114:1-8)

Make a Path before God (Psalms 114: 1~ 8)

시편 114편은 작은 걸작품입니다. 이 시는 할렐시(113-118편)로 알려진 6개의 찬양시 중 두 번째 시입니다. 여기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er)

Psalms 114 is short but a masterpiece. It is the second song of six songs known as Hallel (113~ 118). In Psalms 114: 1-8, here the triumph is not of the people of God, but of God himself. Some theologians say the purpose of this song by an anonymous writer is to remind Jews of the salvation the Lord showed the Jews in the Exodus from Egypt, and to have them firmly trust that God will deliver them from Babylon. As this analogical interpretation, holds true not only to the Jew of that time but for people of future generations, it has been a favorite poem for all saints aspiring for salvation.

익명의 시인이 이 시를 쓴 목적은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난날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여호와와 구원을 회상함으로써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확실케 하려는데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추는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후세에게도 통용되므로 오늘날에도 자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대망하는 수다한 성도들에게 이 시가 애송되고 있습니다.

1. 제사장들의 나라로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2절).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로,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묘사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리고 광야 성소와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나라는 그의 영토가 되고 왕국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나라가 된 국가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출 19:6과 시114:2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2. 애굽에서 나오며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시인은 이것을 연상하면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3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연상하며 “산들이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들 같이 뛰었다”(4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3. 무슨 이유가 있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어찌합니까? 시인은 대답을 알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바다도 강도 산도 갈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7절).

그러므로 애굽의 백성을 나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며, 반석을 쳐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가르친 롬 8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과 시 114편을 같은 선상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 회상하지 말고 오늘의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o the Nation of Priests

"Judah became God's sanctuary, Israel his dominion." (2)

It is astonishing that Judah is described as God's sanctuary, and Israel his dominion. The glory of God was on Mount Sinai, when He descended on it, in the assembly in the desert, and in the temple of Jerusalem. God came to his people and ruled over them and the population became his dominion and his kingdom. Today, there is no holy nation, no country of priests, but we have church which is God's sanctuary and dominion. Thinking of Exodus 19:6, Psalms 114:2, apostle Peter wrote of the church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I Peter 2:9).

2. Out of Egypt

God led the Israelites who were out of Egypt into a desert. The author of Psalm 114 says, "The Sea looked and fled, the Jordan turned back." (3). Thinking of Exodus "the mountains skipped like rams, the hills like lambs." (4)

The author of Hebrews wrote of this, saying, "The sight was so terrifying that Moses said, 'I am trembling with fear'."

3. Why was that

Why was it that the Red Sea was divided and people could cross the Jordan River? The author knowingly asks this question. The answer is the Lord, the God of Jacob.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n the presence of the God of Jacob, the Seas, the Rivers, and mountains tremble, then divide and fall.

It was our God, who led his people out of Egypt, turned a rock into a pool, the hard rock into springs of water. God's people in New Testament times read Psalms 114 in line with a sense of safety in Christ that Paul mentions in Chapter 8 of Roman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My beloved Seoul Church congregation!

Let's not reflect on our God in the past only. Let us see God in what is happening today and revere him who is working in us and for us. In the name of Jesus, I do wish that you and I share this reverence for God forever. May the song of gratitude and joy be on our lips forever.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로잔 국제 지도자 대회

Lausanne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6월8일(월) - 12일(금)까지 5일간 / 개최예배 - 6월8일 오후6시 서울교회 본당에서

서울교회 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한 로잔 국제 지도자 대회가 내일 오후 6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로잔회원들은 지난 주 개별적으로 입국하여 우리교회가 장신대와 협력하여 공항영접부터 모든 의전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내일 오후 6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예배를 가짐으로 이번 대회의 모든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개최예배에서 이종윤 목사(아시아로잔의

장, 한국로잔의장은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Doug Birdsall 목사(세계로잔의장)는 설교를 한다.

개회예배 후 8층 만나 홀에서는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의 모든 일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한 서울교회와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할 장신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도서관 개관시간 - 변경 -

오전10시-오후10시

도서관 개관시간이 다시 조정되었다. 하절기를 맞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은 시간동안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동안 개관한다.

성도들과 이웃주민, 학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 Elders' school



지난 6월2일(화) 오전 11시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제2회 장로학교(Elders' school)가 우리교단에 속한 전국 의 장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특강을 했다.

2009년 홍해작전 개전, 첫 발 떼다

6월25일까지 매일 새벽5시 - 본당에서

말씀과 기도의 작전인 2009년 홍해작전이 6일(토) 오전 5시 개전의 첫 발을 떼었다.

이번 홍해작전 중 은혜의 새벽강단은 6월15일(월)까지 박노철 목사(구리지구촌교회)가 인도하며, 16일(화)부터 25일(목)까지는 이종윤 목사가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북한 핵문제와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경제문제 등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족함을 고하여 국가와 교회, 가정과 개인의

홍해를 기도로 갈라야 하겠다

한편 홍해작전을 이끌고 있는 홍해작전 본부(참모장 홍성주 장로)는 이번 홍해작전은 다락방 중심으로 섬김을 실천하여 승전예배 시간에 우수다락방을 시상하고 교구별로는 가장 많이 출석한 다락방을 시상할 예정이다.

교회학교는 14일(주)에 홍해작전 백일장과 4행시 짓기, 그리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새벽기도회에 출석율이 높은 3개의 교회학교를 시상하여 어린이들도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보훈의 달, 우리의 유월절이 되게 하자.



이갑진 장로
(비전2020운동본부 위원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며 나라의 소중함과 고난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일깨우는 달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김일성은 '조국해방전쟁'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였다. 이 나라가 낙동강 전선을 경계로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군과 함께 미국을 선두로 한 유엔참전 16개국과 5개국의 병원을 보내 우리를 구해 주셨다. 3년 동안의 전쟁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300만 명 이상의 북한 동포들이 고향을 등진 피난민이 되었으며, 10만 명 이상의 참전국 병사들이 이 땅에서 전사하였다. 전쟁 발발 59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휴전선을 경계로 120만의 북괴군을 65만의 국군으로 막고 있으면서, 저들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도

모두 하나 되어
조국 앞에 가로 놓인
안보위기의 홍해를 건너게 하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향한 힘찬 진군을 하게 하자.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핵을 개발하고, 두 번의 공개적인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제는 사거리 6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해방의 역사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승된다. 그들은 누룩 없는 떡 하나를 들고 들로 쫓겨가면서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고난의 떡이라.....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리라. 지금은 노예이어도 내년은 자유인이어

라" 하고 외친다. 처절한 유랑세월에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전승의 교육이다.

59년 전, 우리는 공산화되기 일보직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도 소금기 없는 "주먹밥"을 들고 들로 쫓겨가며 "이 주먹밥은 우리의 조상들이 6.25전쟁의 피난길에서 먹던 고난의 양식이라...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의 반쪽에서 살고 있지만 내년에는 복음화 된 통일조국에서 살리라. 지금의 우리가 분단의 장벽으로 오 갈 수 없는 속박의 처지이나, 내년은 통일 대한민국의 자유인이어라" 하고 외치는 역사의 전승교육이 계대를 이어 가게 하자. 그리하여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분의 역사(His Story)를 알게 하는 우리의 기념절로 전승되게 하자. 지금 서해바다와 백령도, 연평도에는 전운의 먹구름이 세차게 감돌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2009년 6월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 조국 앞에 가로 놓인 안보위기의 홍해를 건너게 하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향한 힘찬 진군을 하게 하자.

Rev. Heon-Sang Noh



노헌상 목사(로잔국제지도자대회외지도)

2010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제 3차 로잔대회에 앞서, 로잔국제지도자대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 1차 대회와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 2차 대회-당시 이종윤 위임 목사님이 주 강사 중 한 분이였다-에 이어 제 3차 로잔 대회는 "세상과 화목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고후 5:19)"을 주제로 삼고 있다.

60여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250여 명이 모이는 이번 대회는 2010년에 열리는 제 3차 대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리허설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에서 이러한 중요한 대회가 열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괄목할 만한 부흥과 깊은 영성, 그리고 한국이 가진 뛰어난 IT 기술 때문이다.

6월 8일 저녁 6시 서울교회에서 개회예배를 드리는 이번 로잔국제지도자 대회를 위해서 한국로잔위원회의 장: 이종윤 목사와 서울교회 김치신학세미나,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특히, 김치신학세미나는 준비위원회를 기획, 진행, 의전과 수송, 안내, 봉사, 멀티미디어, 의료, 재정, 홍보, 통역으로 조직화해서 이번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번 로잔국제지도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로잔지도자대회

Lausanne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SEOUL, KOREA JUN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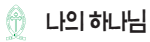
Prior to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 at Capetown, South Africa in 2010, the Lausanne Biennial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will be held at th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and Seoul Presbyterian Church from June 8 to 12. Since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 at Lausanne, Switzerland in 1974 and the second Congress at Manila, Philippine where Rev. Jong Yun Lee was one of the key speakers, the third Congress will meet under the theme of "God who reconciles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2 Cor. 5:19).

The Lausanne Biennial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will consist of approximately 250 evangelical leaders from 60 nations. It has great significance because it will be a rehearsal for the leadership of Lausanne to check their preparedness for the Third Congress. The reason why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is being held in Korea is that the leaders want to see the remarkable revival and profound spirituality of the Korean church, as well as utilize the out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that Korea has.

The Lausanne Biennial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will begin with an opening service on June 8 at 6 pm at Seoul Church. The Korea Lausanne Committee (chairman: Rev. Jong Yun Lee), 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of Seoul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meeting for a long time. KIMCHI has prayed especially that this meeting would be successful, and has already been preparing through its preparatory committee by planning procedure, protocol, transportation, guidance, service, multimedia, medical service, finance, advertisement and translation. I request that the church members pray and help in order that this meeting will be successful by God's grace.

Please note that this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Times	Fri 5 June	Sat 6 June	Sun 7 June	Mon 8 June	Tue 9 June	Wed 10 June	Thu 11 June	Fri 12 June	Sat 13 June
7:00-7:30	Arrivals: Communications Working Group IDDs Intercessory Committee International Participant Selection Committee	Arrivals: Administrative Committee Meetings: Communications Working Group IDDs Intercessory Committee International Participant Selection Committee	Attend Church	Administrative Committee & IDD Meetings (Other small groups as needed) REGISTRATION	Early Morning Prayer	Early Morning Prayer	Early Morning Prayer	Early Morning Prayer	Younger Leaders Team Meeting
7:30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8:30-10:30					Devotion and Bible Study (video record)	Devotion and Bible Study	Devotion and Bible Study	Communion	
10:30					COFFEE	COFFEE	COFFEE	COFFEE	
11:00-1:00					LCWE Business Budget Fund-Raising Administration	Congress Programme Update & Prototype (video record)	Congress Team Meetings Other small group meetings	Farewell Session	
1:00					LUNCH	LUNCH	LUNCH	LUNCH	
2:00-4:00					General Update CT2010 Arrangements Part Selection Communications Global Partic. IT	Programme	Congress Team Meeting with Administrative Committee & IDD's Other Small Group Meetings	Departures Younger Leaders Team Meeting	
4:00					TEA	TEA	TEA		
4:30-5:30					Break	Programme	Team Meetings		
5:30									
6:00	Reception hosted by Pres. of PCTS	Break	Break						
6:30-7:30	Dinner	Dinner	Dinner Hosted by World Vision						
7:30-9:00	CT2010 Update, cont Intercessory Participant Services	Family Time							



아름다운 도서관을 저는 사랑합니다

김경희 성도 (1교구)

도서관에서 봉사하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글을 쓰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것은 제가 봉사자라고 나서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초보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과 살진 송아지로 그의 기다림과 사랑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뒤늦게 돌아온 저에게 주신 감당 못할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다시 찾은 나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은혜로우신 이종윤 목사님과 부 목사님들을 통한 말씀의 향연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법을 가르쳐주셨고, 봉사라고 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수준 높은 시온찬양대와 도서관 섬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 도서관은 2005년 11월 23일에 개관하였으며 3000여권 이상의 양질의 기증도서를 시작으로 현재 4,500여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기독교 서적이고 철학, 경제, 교육, 역사, 소설 등도 고루 갖추고 있어 교인들의 문화적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에서 봉사하며 누렸던 기쁨 중의 하나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많은 탐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더 이상 내 소유물로 여기는 대신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간의 도서관 기증 운동은 성도들과 함께 펼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쁨은 즐거이 도서관 청소를 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발견하는 책들, 그중에 필독 중의 필독임에도 읽지 못한 책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빌리러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의 만남, 책 많이 읽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공부하러 오시는 장로님들을 뵈는 일들, 또 이 지역 주민들, 사랑스런 학생들을 만나는 일은 봉사를 하며 누리는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이제는 이분들과 더불어 도서관과 교회사랑, 서울교회 성도로서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창중인 도서관 서가 정리 작업이 끝나는데로 티타임 자리를 마련해 도서관이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친숙한 사랑방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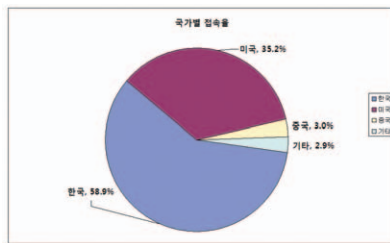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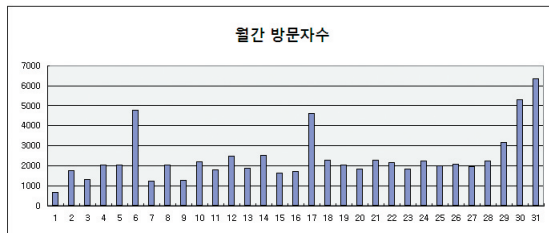


서울교회 홈페이지 접속 통계 - 5.1 ~ 5.31 -

총히트수	3,092,038 건
총페이지뷰	295,289 건
총접속자수	73,803 명
일일 평균 방문자수	2,380 명

지난 5월 우리교회 홈페이지는 매일 평균 2,380명이 방문하였으며 한 달간 총 73,803명이 접속하였다.

성도들의 더욱 많은 이용바란다.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 특별 찬양은 영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 (Jerusalem choir, 지휘/김문영)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영어 예배부의 찬양대로서 2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 믿음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다.

김문영 지휘자(미국 맨하탄음대 성악박사)의 "Allelujah" 독창과 "Hallelujah to the King of kings" 외 2곡의 합창을 오보에, 트럼펫과 함께 연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양해를 구합니다

6월8일(월) 오후6시 서울교회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로잔국제지도자대회 개최예배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3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영만찬은 만나 홀에서 갖게 됩니다. 좌석이 협소하여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외부에서 초청받고 오시는 교계지도자들만 참석하게 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월9일(화) 아시아로잔위원회 Ex-Comm.(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 특녀: 11교구 홍재일 김정희 성도 가정
12교구 서동욱 진현미 성도 가정
- 이사: 16교구 박순자 권사 이상호 집사 이상윤 성도 가정, 대치 3동 963-11
- 주간식당봉사: 바울선교회(6.7) 엘리야선교회(6.14)
- 금주의 식사: 임광식 장로 노영숙 권사 가정 (손자결혼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흥해를 가르는 흥해자전 위하여
3. 로잔국제지도자대회,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세계적 경제 대란을 잠재우고 북한의 전쟁위협 사라지도록

교회외는 길

